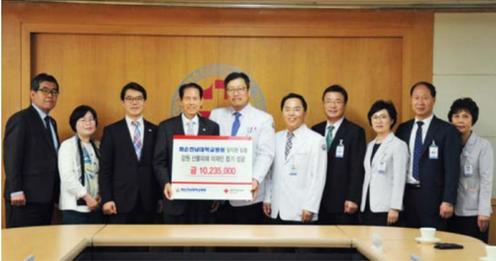


화순전남대병원 강원 산불피해 돕기 성금 전달



화순전남대병원(원장 정신) 직원들이 최근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구호성금을 모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홍석)에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광주·전남 현지어행 리포터 '가봄' 발대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이태호)는 지난 30일 광주·전남 현지어행 리포터 '가봄' 발대식을 열었다. '가봄' 10명은 오는 11월 까지 주요 관광지를 SNS 등을 통해 홍보한다. <한국관광공사 제공>

조대부고 총동창회 임장택 동문 장학금 1억원 기탁



조대부고 총동창회는 최근 무안컨트리클럽에서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24회 동문인 임장택(사진 오른쪽)(주)유맥 대표이사(가)가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 1억원을 기탁했다. <조대부고 총동창회 제공>

광주 남구자원봉사센터 어르신 경로 위안잔치



광주시 남구자원봉사센터는 2일 어버이 날을 앞두고 남구 주월동 푸른길공원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 위안잔치를 열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5·18은 시민항쟁... 모두가 피해자이자 주인공”

5·18 체험담은 책 '5·18 우리들의 이야기' 엮은 서석고 동창회

공수부대에 잡혀 46일간 고초 밟고 안하러다 죽음 맞은 친구 당시 고3 학생들 61명의 사례 456페이지·사진 160컷에 담아 5·18 기념재단 출판기념회

월 27일 계엄군 진압당시 가까스로 탈출한 사람, 공수부대원에게 붙잡혀 전남대와 광주교도소에서 46일간 고초를 겪은 사람 등 각양각색의 사례가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고문을 당하면서도 함께 시위에 참여한 '나'를 끝내 말하지 않은 친구의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다.



“5·18 시민 항쟁은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며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5·18 중심에는 몇몇 사람이나 특정한 세력이 없었고 있었다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있었지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생생한 체험을 담은 책 '5·18, 우리들의 이야기' (심미안)가 발간됐다. 당시 광주 서석고 3학년에 재학중이었던 61명이 주인공들로, 책은 서석고 5회 동창회가 주축이 돼 엮었다.

임영상 서석고 5회 동창회장은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물론, 산군부의 정권장악 시나리오에 따라 자행된 ‘광주살육작전’ 때 고3이었던 이들이 어떻게 지나야 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책속 주인공들은 2일 5·18기념재단 사랑방에서 열린 출판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항쟁의 사례 등을 밝혔다.

도정 앞 집단 발표 때 총상을 입은 사람, 456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책에는 제

출판기념회 자리에서는 계엄군의 편지(便衣隊) 활동 사례가 처음 공개돼 이목을 끌었다. 당시 고3이었던 오일교 씨는 진형처럼 따랐던 30대 청년과 함께 시위대 차량에 탑승해 계엄군 만행을 규탄했다. 그러나 5월 21일 서장검문소 인군을 통과할 때, 청년이 오씨를 계엄군에 인계하는 바람에 상무대 영창에 잡

혀갔다. 오 씨는 시위대로 위장한 계엄군 편지대에 붙잡힌 것이다. 한편 이번 책은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 같은 주장이 허무맹랑한 허구임을 증명하는 것 외에도 5·18진실규명과 정신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 동창회장은 “책 출간을 계기로 광주 지역 다른 고교 졸업생들에게도 5·18체험담을 기록하게 하는 자극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오일정신의 숭고한 대중정신을 전국화 세계화하는 데도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책 발간하기까지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다.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데다 생업이 있기에 시간을 내기가 만만치 않았다. 더욱이 트라우마 때문에도 선뜻 참여하기를 주저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456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책에는 제



총상을 입은 당시 광주서석고 3학년 전형문이 병원 시트에 누운 채 이동 중이고, 왼쪽 손목에 수건을 묶은 친구 김동룡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심미안 제공>

합담 외에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관련 사진도 첨부돼 있다. 사건 현장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촬영한 사진 160컷도 실렸다. 책은 5·18기념재단의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진행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출판기념회 자리에서는 계엄군의 편지대(便衣隊) 활동 사례가 처음 공개돼 이목을 끌었다. 당시 고3이었던 오일교 씨는 진형처럼 따랐던 30대 청년과 함께 시위대 차량에 탑승해 계엄군 만행을 규탄했다. 그러나 5월 21일 서장검문소 인군을 통과할 때, 청년이 오씨를 계엄군에 인계하는 바람에 상무대 영창에 잡

혀갔다. 오 씨는 시위대로 위장한 계엄군 편지대에 붙잡힌 것이다.

한편 이번 책은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 같은 주장이 허무맹랑한 허구임을 증명하는 것 외에도 5·18진실규명과 정신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 동창회장은 “책 출간을 계기로 광주 지역 다른 고교 졸업생들에게도 5·18체험담을 기록하게 하는 자극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오일정신의 숭고한 대중정신을 전국화 세계화하는 데도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가정의 달 맛이 어르신 이·미용 봉사

임곡동 주민센터·첨단 헤어메이크센스 등 합심



가정의 달을 맞아 효사랑 나눔 이·미용 봉사 활동이 광산구 임곡동 주민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행복 나눔 이·미용 봉사활동은 임곡동(동장 장용성)이 주관하고 첨단 헤어메이크센스(원장 김성자) 주최했으며 (주)정맥(대표 김재주), 그린보(대표 정은희), 호남실버빌(이사장 조승호)이 후원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김성자 원장은 뷰티업

계에서 20여 년을 종사해오고 있는 전문가다. 대한총재학회 1급 관리자, 한국 KAT 임상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김 원장은 순천 SOS 어린이마을 고아원, 광주 씨밀레요양병원, 광산구 성내마을, 담양 노인당 등에서 미용봉사를 해왔다. 한국평화인권대상 사회봉사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대 여학생 ROTC 1차 전원 합격

호남권 최대 합격률...16명 수준별 맞춤형 교육 주효



2019학년도 여학생 ROTC(학군사관) 1차 선발시험에서 전원 합격한 광주대 국방기술학부 학생들과 김찬환 학부장(맨 왼쪽)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2019학년도 여학생 ROTC(학군사관) 1차 선발시험에서 호남권 최고 합격률을 기록했다. 광주대는 최근 여학생 ROTC 60기 선발시험에 응시한 국방기술학부 여학생 16명이 전원 합격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최종 선발에서 8명 중 7명이 합격해, 호남지역 최고 합격률을 기록한 데 이어 괄목할 만한 성과다. 여자 후보생은 전국을 10개 권역별로 구분해 호남지역에 배정된 여학생 ROTC 선발과정은 경쟁이 치열했다. /최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3 FAX 062-222-4938, 222-4918

호축

- ▲장대하·김정후씨 장남 용호군, 최광일(대명엘리베이터 사장)·양순석씨 장녀 유리양=4일(토) 낮 12시 광주웨딩그룹 위더스 5층 엘리홀 062-364-1234. ▲최현관·김미숙씨 아들 선우군, 오복자(뜰안채 대표)씨 딸 민애양=4일 낮 12시 광주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드레드웨딩홀 4층 라비엔홀 062-228-0000. ▲이종래·최영희씨 아들 승환군, 김용채(국제로타리 3710지구 전 총재)·체세본씨 딸 주영양=4일 낮 12시 천주교 광주대학교 구치동동성당. ▲한승팔(MSL 대표)·권기숙씨 장남 장근군, 서복근·나병순씨 장녀 유리양=4일 오후 1시 광주시 서구 광천동 웨딩그룹 위더스 광주 1층 메리엘홀.

동창회

▲승일중·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오인성) 등반대회=11일(토) 오전 9시30분 무등산장 주차장 010-6890-1819.

종친회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이화월례회(회장 이동재)=14일(화) 오후 6시30분 지원회의실 062-225-5636.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청년이화월례회(회장 이태웅)=21일(화) 오후 7시 지원회의실 062-225-5636.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여성이화월례회(회장 이보희)=22일(수) 오전 11시 지원회의실 062-225-5636.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Advertisement for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Respectfully pray for the deceased's soul). It lists names and dates for memorial services for several individuals, including Shin Gwan, Kim Gyeong, and others, with specific times and locations.

Horoscope section titled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Fortune seen by knowing one's destiny). It provides daily horoscopes for the zodiac signs 子 (Rat), 午 (Horse), 未 (Goat), 申 (Monkey), 酉 (Rooster), 戌 (Dog), 亥 (Pig), 卯 (Rabbit), 辰 (Dragon), and 巳 (Snake). Each sign includes a brief prediction and a '행운의 숫자' (lucky number).